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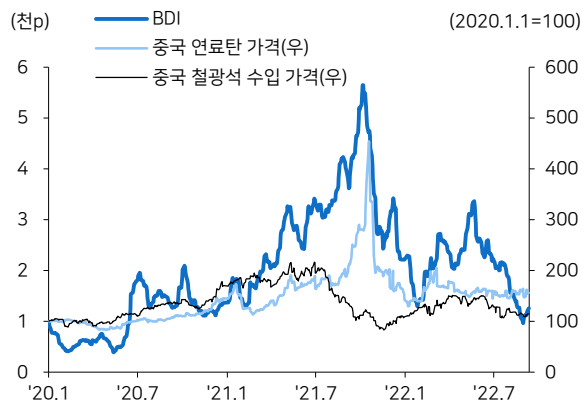
2022. 9. 13 (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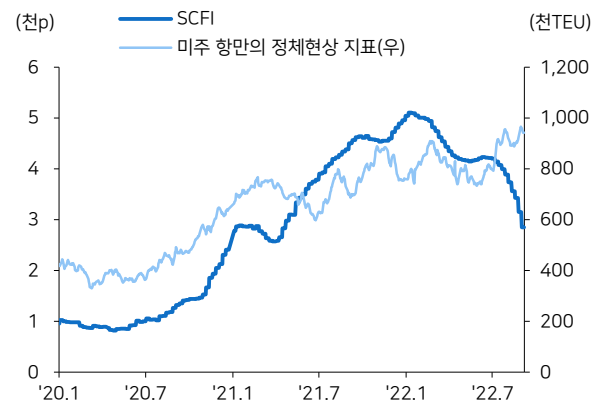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256.0p(+35.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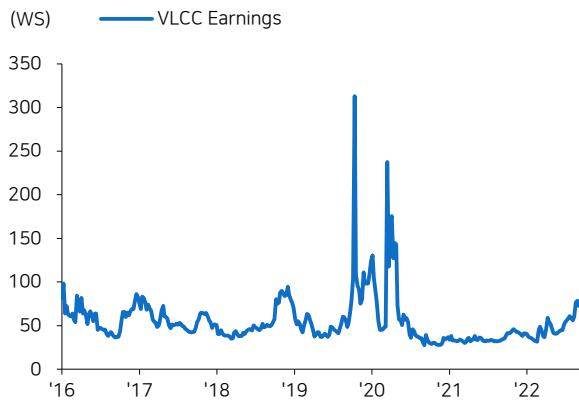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562.1p(-285.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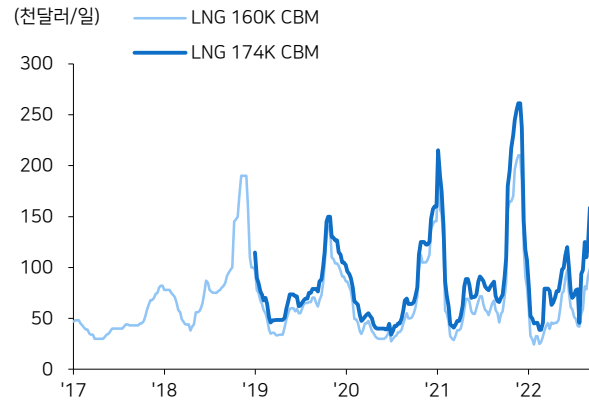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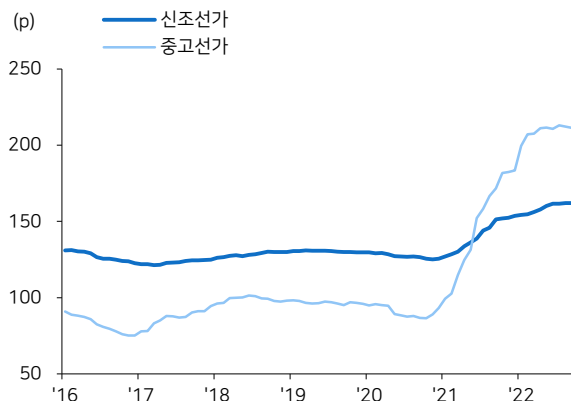
78.4p(+5.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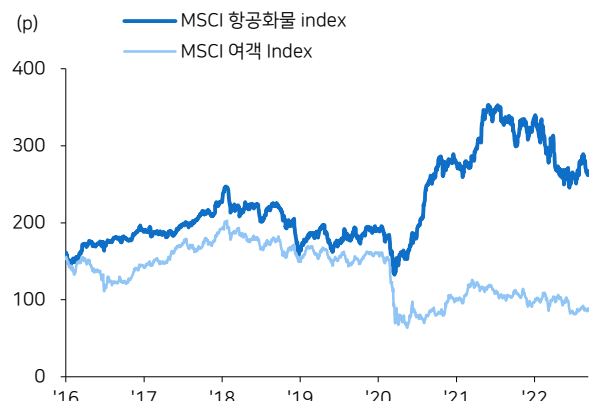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98.8p(+7.3p WoW)
158.8p(+36.3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2.4p(+0.2p WoW)
211.3p(-0.3p WoW)

항공시장 지표

267.3p(-)
88.8p(-)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대한항공, 외항사에 '인천~미주' 분배 추진...결합 승인 부작용 우려

대한항공이 미국 경쟁당국 승인을 얻기 위해 인천~미국 노선 항공편 중 일부를 동남아 항공사에 넘겨주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 중으로 알려짐. 미국 경쟁당국은 경쟁 제한 최소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대한항공의 계획이 성사되기 위해선 각국 정책당국간 항공회담을 통해 '이원권'을 배분해야 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남아 국가 등과 항공회담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함. (한겨레)

제주항공, 내년부터 차세대 기종 'B737-8' 40대 순차 도입

제주항공이 지난 26일 발표한 3,200억원규모 자본확충 계획에 따른 자금으로 2023년부터 B737-8 4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해당 기종은 현재 운용 중인 B737-800보다 운항거리가 1천km이상 길어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등에도 운항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리스로 운영하던 항공기를 구매기로 대체함. (연합뉴스)

현대중공업그룹, 연료전지 별도회사 만든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연료전지 부문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신사업 조직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됨. HD현대는 2022년초 연료전지 TF를 신설한데 이어 사업화시점에 맞춰 연료전지 부문을 분사하려는 계획으로 확인됨. 연료전지 기술을 내재화하기 위해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개발 전담 조직인 연료전지TF를 꾸리고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알려짐. (매일경제)

VLCC rates surge despite Iran gloom

이란 핵합의가 진전이 없음에도 VLCC운임이 2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걸프-수에즈 동부 spot운임이 금요일(9일) 37% 상승한 바 있음. 이란 제재 완화는 100만~150만배럴/일 가량의 수출 물동량 증가와 '그림자 선대'의 폐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알려짐. 현재 VLCC 선대의 약 10%이상이 '그림자 선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짐. 한편, 유럽 3개국은 이란의 2015년 핵합의 복귀 협상과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한계에 다다랐다고 언급한 바 있음. (Tradewinds)

VLCC traffic into Europe tops 1bn tonne miles per day, says Poten

Poten에 따르면, 유럽항 VLCC 수송이 7월 10억톤마일/일을 달성했다고 보도됨.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유럽은 러시아가 아닌 지역으로부터 원유 수입량을 증가시켜옴. 미국 걸프만산 원유 수입량은 과거 6% 수준에서 침공 이후 12%까지 증가함. 유럽 수입량 증가로 톤마일 수요가 크게 증가해 탱커시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함. Poten은 러시아산 원유 제재가 시작되면 탱커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함. 유럽은 아직 러시아산 원유 200만BPD를 수입하고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Delayed Gazprom LNG plant comes online

러시아 Gazprom이 지연되었던 Portovaya LNG 플랜트 테스트 가동을 실시했다고 보도됨. 8월말부터 대기 중이었던 선박에 첫 화물을 실을 예정으로 알려짐. 해당 설비는 Gazprom이 단독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첫 LNG 터미널임. 2개 train으로 연간 1.5MTPA를 처리할 수 있음. (Upstream)